



월경통 - 원인을 찾아보자

박금자 / 대림동 박금자산부인과 원장

김 여인(38세)은 3년전부터 월경통이 심한데 다 월경량이 많아 병원을 찾아왔다.

진찰을 해보니 자궁의 크기가 커져 있었고 자궁축이 만져졌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더니 자궁근육에 5×4cm쯤 되는 큰 근종이 발견되었고 2×1.5cm 정도되는 작은 근종 몇 개가 자궁근육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다.

병명은 자궁근종으로 인한 월경통. 평상시에 월경통이 심하고 과다월경으로 빈혈이 심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월경통은 고통스러운 월경을 뜻하며 월경곤란증이라고도 한다. 골반에 질환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골반에 질환이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한다.

원발성 월경통은 거의 대부분 배란 주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초경 시작 후 6~12개월 이내에 나타난다. 초경 2년 이후에 나타나는 월경통은 대개 속발성 월경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발성 월경통인 경우 월경이 시작되기 전 혹은 수 시간내에 통증이 발생하며 기간은 1~2일간 지속되고 72시간을 경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 월경량이 많아지면서 통증이 심할 때에는 속이 매스껍거나 어지럽고 두통(45%), 신경과민증세가 동반된다.

원발성 월경통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증상이 줄어들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80~90%는 증상이 없어진다. 그러나 속발성으로 월경통이 오는 경우에는 대개 골반에 질환이 있는 경우로 20대 후반부터 증상이 시작된다.

속발성 월경통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만성골반염증성 질환, 자궁내막

증, 자궁내막용종이나 자궁내피임장치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월경통이 있는 경우 우선 골반내 생식기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기 위해 초음파 검사 등 전문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발성 월경통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혈,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우선 치료를 받고 생활환경을 바꾸어보고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인 여러 가지 약물들이 적극 추천되고 있다.

월경통이 있는데도 습관성이 된다고 하며 약물을 복용하기 꺼려하는 미혼 여성들이 많다.

물론 생리통의 증세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나 생리통 때문에 일상 생활에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참는 것보다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경통에 사용되는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항프로스타글란딘 제제(게보린, 사리돈, 타이레놀, 폰탈, 아스피린, 아나프록스 등)가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항프로스타글란딘 제제는 습관성 약물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고 복용해도 된다.

월경통은 대개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생리 첫날 심하므로 하루에 세 번 복용할 수 있는데 첫 증세가 가장 심하므로 두 알 복용해도 된다.

속발성 월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원인 질환에 따라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등의 크기가 크다면 전자궁적출술 등이 고려 될 수도 있다.